

2010 희망을 쓴다

② CNS 금관 5중주단

유쾌하고 즐거운 클래식  
금관악기로 대중과 소통

광주시립교향악단 재야음악회가 열렸던 2009년 12월 31일 밤 광주문화회관. 정식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열린 '또 다른 음악회'에 유쾌한 금관 5중주단이 등장했다. 트럼펫·트럼본 등을 앞세운 5명의 연주자는 새해 카운트 다운을 함께 한 관객들에게 멋진 음악과 재치있는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공연을 준비한 이들은 CNS금관5중주단(이하 CNS)의 서용일(36·트롬본·광주시향), 함인호(36·호른·목포시향), 이우신(36·트럼펫·아시아 아트 심포니), 추선호(31·트럼펫·광주시향), 김세훈(30·튜바)씨.

CNS가 꾸려진 것은 지난 2004년. CNS는 'Classic and Swing'이라는 뜻으로 정통 클래식 음악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 피아노나 현악기 등과 달리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금관악기에 대한 매력을 '재대로' 알려보자는 취지로 당시 젊은 연주자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출발했다.

CNS의 공연엔 '테마'가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했던 '80분간의 세계 일주', 영화음악만을 모아 마련한 '브라스 신시네마', 창단연주회로 진행했던 '브람스에서 비틀즈까지',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악기 세상' 등 프로그램은 한편의 이야기처럼 흐른다.

CNS 공연은 즐겁다. 무대 위에서 등장하며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인터미션 시간에는 로비에서 관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준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때는 빼애로



CNS금관5중주단은 유쾌하고 즐거운 클래식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왼쪽부터 김세훈·함인호·이우신·서용일·추선호씨.

빼애로 분장·영상 활용 등 테마 있는 공연  
올해 광주 벗어나 순천·나주 등서도 연주

분장을 하고 영상 자료를 활용한 풍성한 볼거리도 연주회의 또다른 즐거움이다.

CNS는 2010년 4차례 정도의 굵직한 연주회를 계획 중이다. 가장 먼저 일정이 잡힌 화요예술무대는 '바하 VS 헨델'이라는 타이틀로 준비중이며 또 올해부터 나주, 순천 등 광주를 벗어나 전남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을 받는 데서 벗어나 기획연주회를 진행하는 등 후원 기업과 '원원'하는 기획들도 준비 중이다. 그밖에 취미로 관악기를 배운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CNS윈드 앙상블'의 활동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1주일에 한번 연습을 하는 CNS 활동은 단원들에게도 활력이 된다.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있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앙상블을 통해 '내 음악'을 하고 있다는 정서적 필요움을 느낀다. 또 클래식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즐거움 중의 하나. 무엇보다 앙상블의 특성상 개인의 실력을 갈

수 없이 단원들과 선의 경쟁을 하면서 각자의 내공을 쌓고 있다.

CNS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 CNS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볍고 즐거운 음악을 넘어, 그 음악들을 통해 관객들이 매혹적인 정통 클래식 음악에 다가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레퍼토리 선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연주자들이 가장 신날 때는 관객들이 행복해 하고,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단원들은 서울 등지에 비해 조금 소극적인 지역 관객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로 CNS에 힘을 실어주길 바랐다.

추선호씨는 "관객들이 금관악기에 대한 고정 관념들을 깨고, 음악에 빠져드는 걸 볼 때 기분이 좋다"며 "대중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정통 클래식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연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3547-6691. http://club.cyworld.com/5cns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하늘에서 보는 '남도 갯벌' 어떤 모습일까

광주일보 선상근 기자 특량만 등 항공 촬영  
이달 10~21일 서울서 '갯벌, 생명의 근원전'



'생명의 근원'

질척한 남도 갯벌에는 서민들의 울음과 희망이 담겨있다. 갯벌은 수많은 바다 생명뿐 아니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주는 꼬막과 낙지 등 풍부한 먹을거리도 키워낸다.

이 때문에 발목을 잡아끄는 꼴을 힘겹게 헤쳐나간 남도 여인들의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갯벌은 철쭉처럼 곱다.

광주일보 선상근(보성주재) 기자가 오는 10~21일 서울시 종로구 사관동 '갤러리사간'에서 갯벌을 촬영한 항공 사진을 모은 '갯벌, 생명의 근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비행기를 타고 보성 특량만 등 남도 일대의 생생한 갯벌을 촬영한 사진을 선보인다. 바다 사진이지만 배 한 척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갯벌만을 담았다.

항공 촬영을 해서 카메라 앵글의 시점이 높다 보니, 물살에 쓸려 갯벌 표면에 생긴 다양한 무늬가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이들 무늬는 거대한 용이 꿈틀대는 듯 힘이 넘치고, 때론 어린 꽃잎이 피어나는 듯 아련하기만 하다.

자연이 만들어 낸 갯벌의 무늬는 흡사, 잘 마무리된 동양화의 여백

을 느끼게 해준다. 또 꼬막을 캐는 봄 수확이 끝난 특량만 갯벌과 저물어가는 순천만 일대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도 눈에 띈다.

그는 제2회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 전주전국사진공모전 은상, 순천전국사진 공모전 가작 등을 수상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지부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20-441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설치 작가 그룹 'V' 창립전

6~12일 서울 갤러리 아트

설치 작업을 하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그룹을 만들어 의욕적인 첫 출발을 시작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아트는 6~12일 설치 작가 그룹 'V'(variety)의 창립전을 갖는다.

홍, 조광수, 조재희, 이은성, 임기준, 최고봉, 채희원씨가 뜻을 모은 'V'는 이번 전시에서 '참 잘했어요'를 주제로 '젊음'이 뽀짝 묻어나는 개성 강한 작품을 선보인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처럼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모습과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욕망을 꼬집는 작품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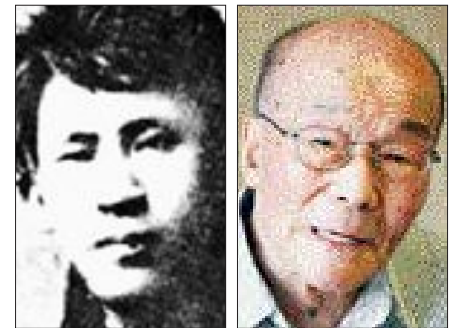
'V' 공동창작 '무제'

다. 문의 062-510-01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상·피천득 문학세계로

탄생 100주년 맞아 학술대회 등 재조명



<이상>

<피천득>

천재 시인 이상(1910~1937)과 국민 수필가 피천득(1910~2007)이 올해 나란히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시와 소설, 또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수필로 한국 현대문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두 문인의 삶과 문학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조명된다.

서울에서 출생한 메다 스물일곱의 나이로 요절해 지하체나 유족을 중심으로 한 기념사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상은 이번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학술행사나 출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연내 마련되며 지난해 이상전집을 발간하기도 한 권영민 서울대 교수가 올해 이상 문학을 키워드로 정리한 저서를 출간하는 등 연구 출간도 잇따를 예정이다.

수필가이자 시인, 영문학자였던 금아(琴兒) 피천득은 올해 탄생 100주년과 함께 3주기도 맞는다.

1930년 신동아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피천득은 특히 일본 유학시절 연모의 정을 품었던 소녀 아사코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담담한 문체로 풀어 낸 수필 '인연'을 통해 국민 수필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에 2008년 개관한 '금아 피천득 기념관'과 시인의 묘소와 시비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등에서 유족과 제자 등을 중심으로 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움직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활동한 문학평론가 안환광(1910~1982)과 월북 소설가 겸 시인 허준(1910~?)도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문인들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장수 바다장어' (Jangsu Bada Jang-eo) featuring a chef and various seafood dishes. Text includes '100% 자연산' and '장수바다장어'.

Advertisement for '영일 매력한우' (Yeongil Maeriek Hanu) featuring a cow and text about '매력한우' and '맛있는 직판장'.